

■ 주요 기사

○ 기본소득아동수당 등 대선공약 관련 (5건)

중앙	[간추린 뉴스] 남경필 “연 2000만원 소득 보장할 것” 유승민 “초등~고등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한경	유승민 “가정양육수당 20만→40만원”...남경필 “판교형 기업도시 10개 만들 것”
경향	[주목! 이 공약]④민주당 이재명의 ‘기본소득’ “특정 연령·농어민에 연 100만원”...“실효성·재원 마련 의문시 기본소득제, 서구에선 이미 낮익은 이슈...핀란드선 실업자에 매달 70만원씩 지급

○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제고 대책 논란 (2건)

경향	“고스펙 여성들 눈 낮춰 결혼” 국책기관 저출산 해법 ‘항당’ [지금 SNS에선]저출산, 여성 고스펙 탓?
----	--

○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관련 (1건)

동아	[단독]근로시간 줄이자며 국회처리는 뒷전
----	--

■ 주요 칼럼 · 사실

○ 일자리 대책 관련 (2건)

동아	[사설]소득·소비·양극화 악화의 ‘불명예 3관왕’
한경	[박재완 칼럼] 경제 자유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 저출산 대책 관련 (1건)

중앙	[문소영의 컬처 스토리] 경제학 농담과 저출산
----	---

○ 기본소득 공약 관련 (1건)

중앙	[취재일기] 노량진의 청춘을 꿈꾸게 하려면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고용 복지	제목	[기업브리핑]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서 채용설명회 개최 B6면
		내용	현대차는 3월 7~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채용설명회를 개최. 현대차 채용 페이스북(facebook.com/hyundaijob)을 통해 생중계할 계획
중앙	고용 복지	제목	[리셋 코리아] 창의력 높은 청년 때, 판단력 좋은 장년 때 ... '직업 이모작'을 A4면
		내용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4차 산업혁명과 이모작 사회에 대한 범국가적 공감대 위에 국회에서 '국민경제 이모작 기본법'이 제정 필요. 다음 정부는 범부처적인 '국민경제 이모작 기획단'을 구성, 교육·경제·산업·복지·노동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분야별 이모작 법안 제정해야 함
		제목	[간추린 뉴스] 남경필 "연 2000만원 소득 보장할 것" A20면
		내용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 20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유승민 "초등~고등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 A20면
		내용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아동수당을 도입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문소영의 컬처 스토리] 경제학 농담과 저출산 A32면
		내용	저출산 정책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것은 가사와 돌봄 노동이 '사랑의 노동'으로 아름답게 표현되면서도 정작 경제 시스템에서 그 실제적 중요성과 가치는 막연하게 다뤄지고 도리어 저평가되기 때문
제목	[취재일기] 노량진의 청춘을 꿈꾸게 하려면 E10면		
내용	금전적 보상과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스스로의 보람과 만족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상. 기본소득제의 지향점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꿈꾸는 청년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꼭 기본소득이어야만 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그런 대안이 무엇이 있을지를.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노동	제목	[단독]근로시간 줄이자며 국회처리는 뒷전 A14면
		내용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진해 온 근로시간 단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이 걸은 일자리 창출의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는 당리당락을 앞세우거나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
	고용 복지	제목	중도 '로봇 고용' 확대... 밀도 3배로 A21면
		내용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한 로봇들에 개인 소득세에 해당하는 로봇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로봇 시장인 중국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
매경	고용 복지	제목	[사설]소득·소비·양극화 악화의 '불명예 3관왕' A31면
		내용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데도 정부는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겨 돈을 더 쓰라고 하니 한심. 대선주자들도 국민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민간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청사진 내놓아야
한경	노동	제목	현대차 내달 7~9일 채용설명회 개최...온라인 중계도 A20면
		내용	현대차는 2017년 상반기 채용과 관련된 채용·직무 정보를 지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채용 설명회를 개최
한경	노동	제목	[박재완 칼럼] 경제 자유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 33면
		내용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비스업 문턱 낮춰 신산업 태동기반을 조성하고, 고용 유연성 확대하고 연공서열 문화 불식해야 함.
	고용 복지	제목	유승민 "가정양육수당 20만→40만원"...남경필 "관교형 기업도시 10개 만들 것" 6면
		내용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을 월 4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초·중·고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육 공약으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고용 복지	제목	비효율·불통·무성과로 끝나는 기업 회의, '답·정·너' 팀장에 팀원은 침묵만... 16면	
	내용	상의, 직장인 1000명 조사, 회의 만족도 45점 '낙제점'. 회의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단순 업무점검 및 정보공유 목적이어서'(32.9%)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일방적 지시 위주라서'(29.3%), '목적이 불분명해서'(24.7%), '시간 낭비가 많아서'(13.1%)가 뒤를 이었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고용 복지	제목	[주목! 이 공약]④민주당 이재명의 ‘기본소득’ “특정 연령·농어민에 연 100만원”...“실효성·재원 마련 의문시 8면
		내용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 시장의 발표로 대선 핵심 의제로까지 급부상했다.
		제목	기본소득제, 서구에선 이미 낮익은 이슈...핀란드선 실업자에 매달 70만원씩 지급 8면
		내용	기본소득제 도입은 한국 제도권에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세계적으로는 유럽을 중심으로 수년째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낮익은 주제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 복지제도에서의 소외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제목	“고스펙 여성들 눈 낮춰 결혼” 국책기관 저출산 해법 ‘황당’ 11면
		내용	국책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고소득·고학력 여성의 눈 낮춘 결혼 유도’ 등 부적절한 ‘출산율 제고 대책’을 제안해 논란. 항의가 빗발치자 김상호 보사연 원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보고서 작성자는 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제목	올해도 고용한파...구직 포기 청년 41개월 만에 증가 12면
		내용	국내외 경기 둔화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던 지난해보다도 나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꾸준히 감소하던 청년층 구직단념자들은 3년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목	[지금 SNS에선]저출산, 여성 고스펙 탓? 28면		
내용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만든 ‘출산지도’에 이어 지난 주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문이 가임기 여성을 분노케 만들었다.		

<끝>